

## 北茨城市の復興状況

### 키타이바라키시의 복구상황

지난 25 일 키타이바라키시에 다녀왔습니다. 초나미가 지나간 자리는 아직 완전히 머물지는 않았지만 군관민의 하나된 염원을 키타이바라키시 여러곳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대지진 후, 생활지원과 주택재건, 피해자 고용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량 조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살필수가 있었습니다. 키타이바라키시청사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모니터링 포스트>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일반공개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해산되었지만 그 후, 새롭게 설치된 지진복구 추진본부는 시민단체, 여성연맹, 수산업자등 시민대표 19 명과 츠클바대학의 교수 3 명으로 구성되어져 생활전선에서 직접 활동하는 대표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활동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것이 기대되어집니다.

한편, 대지진 당시, 시청을 통한 외국인들의 문의나 상담은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키타이바라키시 주재 외국인들은 그 대부분이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있어 각 회사나 단체를 통한 복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타이바라키시청에서는 향후 비상시를 위한 <재난시 자원봉사 단체> 등록의 통상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역사적 문화재가 소실된 현장은 겨울풍경과 더불어 더없이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획량은 예년과 다르지 않지만 방사선에 대한 염려로 이바라키라는 원산지표시의 해산물들이 팔리지 않아 어획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 월말에 새단장하여 오픈한 수산물시장의 식당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싱싱한 사시미정식과 이곳에서만 맛볼수 있는 메히카리 튀김은 별미였습니다.



<기타이바라키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활기를 찾고 있는 수산물시장의 사시미정식>



<수산물시장에서만 맛볼수 있는 메히카리 튀김>